

군산시 기업·단체들 지역경제 위기극복 한마음

군산사랑상품권 판매액이 판매 일주일만인 현재 36억6천만원 넘어 가계 경제에 실질적 혜택·손님들 관내 유입효과로 경영안정 도움 전망

군산시를 비롯해 기업 및 단체들이 군산사랑상품권 구입에 앞장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상권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유통이 시작된 군산사랑상품권(발행액 310억원)의 판매액이 판매 일주일만인 10일 현재 36억 6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

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군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시 경제행민국 직원들은 10일까지 1,300여 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으며 추석 명절에 맞춰 3,700여만 원을 자발적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또한 서해환경, 군산도시가스, 군산산업조합, 전북서부항운노조, 소비자교육군산지회 및 기업체 등에서 1억

4,700여만 원을 구입하는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포시장과 상가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안창호 경제행민국장은 "군산시의 경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으로서 추석명절을 맞아 각종 물품이나 선물 구입은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군산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체에 구매협조를 요청하는 등 행정역량을 집

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사랑상품권은 음식집 슈퍼, 학원, 주유소, 미용실 병원, 약국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맹점 지정 업소(10일 현재 5,638개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을 기념해 10% 할인된 금액으로 소진 시까지 한정 판매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편의로 이탈되던 손님들의 관내 유입효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명절 맞아 우수 농수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군산시는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군산시청 1층 로비에서 시민들과 귀성객을 대상으로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전시 및 판매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 우수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군산팍(www.gurafam.com) 제품을 홍보하고 농수특산물 판로를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명절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시에서는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직영, 공공기관을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 단체, 향우회, 기업체를 대상으로 "풍성한 한가위, 군산 우수 농수특산물 군산팍 명절산물 구입"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쳐며 사전주문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장판매 시 추석명절 상품 10개 품목 32종을 시중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사전주문 및 현장판매에서 택배를 통해 원하는 곳으로 배송도 가능하며 선물을 구매한 선착순

/군산=김정훈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입주 속속

16개 기업이 공장 준공 가동 중·7개 기업 공사 중 조만간 23개 가동예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 높여

2017년 말에 준공된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 기업 입주 속속 진행되면서 준공한 지 채 1년이 안된 상황에서 16개 기업이 공장을 준공하여 가동 중이고, 7개 기업은 공사 중에 있어 조만간 23개 공장이 가동되어 제품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약232만㎡ 규모로 2017년 말 준공되었으며, 식품전문산업단지 150개 식품기업과 10개 연구개발(R&D)시설, 물류단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와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게 될 예정이며, 올해 50%의 분양률을 목표로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도 풀무원식품(주) 등 9개의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까지 총 57개(외부지

역 1개 포함)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계약체결 기업 중 23개 기업이 2016년 하반기부터 공장 설립공사를 시작해 16개 기업(순수분, BTC 등)은 준공을 마치고 수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가동을 시작했고, 풀무원식품 등 7개 기업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현재 원료농산물을 사용하여 가동 중인 기업들은 익산시의 고구마, 쌀, 참깨, 배추 등 우수한 원료 농산물을 중계지원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식품 원료비축공급센터가 준공(2021년 예정)되면 우리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와 마케팅으로 농가 판로확보를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식품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식품원료가 적기에 공급되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1차 운영위원회 개최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는 11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회의실에서 이숙복 부시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복)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운영위원회 위촉장 수여, 센터 추진성과 및 비전 보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산지역 고용상황 점검, 센터 운영실적 모니터

링, 신규 사업 발굴 및 제안 효과적 인 고용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 및 예산반영 요청 등 센터 운영의 중요한 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숙복 위원장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가 퇴직자 및 구직자, 기업체에 필요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해줄길 바란다"며 "유관기관에서 슬기를 모아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노인기초연금 9월부터 인상

익산시가 지난 7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선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0만9,980원이었으나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노인 단독가구 및 노인부부 1인수급가구는 월 최대 22만원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노인부부 2인수급가구는 부부

감액을 20%를 적용하여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최소지급액도 기준연금액의 10/100을 적용하여 2만원에서 215,000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개정으로 단독가구와 노인부부 1인수급가구의 92%가 월 25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노인부부 2인수급가구의 88%가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우병희기자

행복도시 군산, 아동친화 추진 컨퍼런스·박람회

**내일 지방정부협 가입 59개 시군구 참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서로 공유키로**

행복도시 군산(시장 김임준)은 오는 13일과 14일(2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201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제2회 컨퍼런스 및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고 군산시가 주관하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59개 시군구가 참가할 예정으로 임시총회, 개막식, 컨퍼런스, 박람회를 통해 화원도시 간 다양한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

임시총회에서는 지방정부협의회 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규약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개막식에서는 군산시를 대표하는 어린이 공연팀인 당북초등학교 예술꽃 국악 공연팀의 '홍보가중 박타령'과 군산부설초등학교 푸른소리 중창단의 공연으로 화려한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컨퍼런스에서는 '아이들에게 행복씨앗을 심어주자'라는 주제로 조벽 HD 행복연구소 소장의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EBS 다큐 프라임 '파더 쇼크 제작자 인 김광호 PD의 부모교육의 핵심은 관계교육이다'라는 주제로 1차 패널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마련 및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신수경 변호사가 2차 패널 발표를 실시해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컨퍼런스의 마지막에는 김임준 군산시장의 '군산시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운영'에 대한 지자체 사례 발표를 통해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전격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박람회에서는 전국 59개 지자체가 아동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체험부스를 운영해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59개 화원도시가 서로 협력해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전국체전 대비 환경정비

익산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맞아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11일 이른 아침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직원들과 한일은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한일 하나라이프 샵터에 나와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출향민들과 전국체전 기간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관계자들에게 밝고 쾌적한 익산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환경정비와 더불어 민선 7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행

정의 일환으로 시청 현관 앞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친절한 아침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친절한 아침인사에 시민들과 직원들은 하루를 밝은 미소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한 미소로 답해주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 정비는 깨끗하고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 및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홍보뿐만 아니라 밝은 미소와 함께하는 친절인사를 실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